



금융감독원

보도자료



소비자는



보도	2025.05.16.(금) 조간	배포	2025.05.14.(수)
담당부서	보험감독국 보험리스크감독팀	책임자	국장 노영후 (02-3145-7460)
		담당자	팀장 한태진 (02-3145-7466)

'24.12월말 기준 보험회사 지급여력비율 현황*

* 회사가 제출한 업무보고서를 기준으로 작성된 수치

1. 현황

□ (경과조치 後) '24.12월말 경과조치* 적용 後 보험회사의 지급여력비율(K-ICS)**은 206.7%로 전분기말(218.3%) 대비 11.6%p 하락

* 19개 보험회사(생보 12개사, 손보·재보 7개사)가 경과조치 적용 中

** 지급여력비율 = 가용자본 ÷ 요구자본

○ 생보사 203.4%(전분기말 比 △8.3%p), 손보사 211.0%(전분기말 比 △16.0%p)

지급여력비율 변동 추이



주) '23.3월말 이후 지급여력비율은 경과조치 後 K-ICS비율

<참 고>

경과조치 적용 前 K-ICS 비율

□ (경과조치 前) '24.12월말 경과조치 적용 前 K-ICS 비율은 191.3%로 전분기말(202.7%) 대비 11.4%p 하락

○ 생보사 182.7%(전분기 比 △8.5%p), 손보사 203.2%(전분기 比 △15.5%p)

2. 지급여력비율 변동 주요원인

□ (가용자본 ↓) '24.12월말 경과조치 後 K-ICS 가용자본은 248.1조원으로 전분기말 대비 10.8조원 감소

○ '24.4분기 중 당기순이익(+0.7조원) 시현 및 자본성 증권(신종 및 후순위 채권) 발행* (+3.3조원) 등으로 가용자본이 일부 증가하였으나,

* 신규 발행 4.1조원(생보 6개사 1.9조원 손보 4개사 2.2조원), 조기상환 0.8조원

○ 금리하락에 따른 보험부채 증가(→기타포괄손익누계액* △6.2조원 감소**) 및 결산배당 효과(△4.8조원) 등으로 가용자본 감소

* 기타포괄손익누계액 주요 변동(+/-) 요인은 시장금리 하락에 따른 ① 자산평가액 상승(+), ② 보험부채평가액 상승(-) (① < ② ⇒ 기타포괄손익누계액 감소)

** 최근 금리하락 등으로 만기가 긴 보험부채 듀레이션이 자산 듀레이션보다 크게 증가하여 음(-)의 듀레이션 갭 기록(⇒ 음(-)의 듀레이션 갭 ⇒ 부채평가액 변동 > 자산평가액 변동)

□ (요구자본 ↑) '24.12월말 경과조치 後 K-ICS 요구자본은 120.0조원으로 전분기말 대비 1.4조원 증가

○ 보장성보험 판매 확대 등으로 장해·질병위험액이 증가(+2.8조원)하고 투자자산 확대에 관련 위험액이 증가(주식 +0.8조원, 부동산 +0.7조원)

< 지급여력비율 변동 상세 >

(단위: 조원, %, %p)

구 분	경과조치 前			경과조치 後		
	'24.9월말 (A)	'24.12월말 (B)	증감 (B-A)	'24.9월말 (C)	'24.12월말 (D)	증감 (D-C)
가용자본(조원)	256.0	245.2	△10.8	258.9	248.1	△10.8
기본자본*	152.6	138.3	△14.3	156.7	142.5	△14.2
보완자본	103.4	106.8	+3.4	102.2	105.6	+3.4
요구자본(조원)	126.3	128.2	+1.9	118.6	120.0	+1.4
지급여력비율(% , %p)	202.7	191.3	△11.4	218.3	206.7	△11.6

* (경과조치 後 기본자본) 자본감소분에 대한 경과조치 적용금액을 기본자본에 가산

3. 시사점 및 향후 감독방향

① 금리변동 관리를 위한 자산·부채 종합관리(ALM) 정교화 필요

- 보험회사의 자본관리는 ALM이 핵심이며, 최근 기준금리 인하, 경기둔화 우려 등으로 금리가 하락하고 있어 중요성이 더욱 증가
- 금리하락시 부채 듀레이션이 자산보다 크게 증가함에도 일부사는 만기가 긴 상품 판매를 확대하는 등 ALM 관리가 크게 미흡
- 향후 금리하락에 대비하여 자산 듀레이션을 부채보다 길게 설정하는 등 금리 민감도를 고려한 선제적인 ALM 관리가 필요

⇒ ALM 관리 수준이 미흡한 보험회사의 금리위험 대응능력 제고를 유도하여 자본 변동성 확대를 방지하는 한편, 회사별 듀레이션 현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계획

② 리스크 중심의 “전사적 의사결정 체계” 마련 필요

- 기대 수익성 지표인 CSM은 현재 시점에서 추정한 미래의 이익을 의미하나 그에 수반되는 리스크(요구자본)는 반영하지 못하는 한계*
- * 리스크 증가를 고려하지 않은 CSM 확대는 장기적으로 보험회사의 자본적정성을 저해할 우려
- CSM 확보만을 위해 위험 대비 수익이 낮은 보장성 상품 판매시, 요구자본이 크게 증가하여 K-ICS비율이 하락할 수밖에 없는 구조
- 자본 확충을 통한 가용자본 확보가 제한적이므로 상품개발 및 영업정책 수립 시점부터 노출된 리스크를 고려한 의사결정 필요

⇒ 보험회사에 대한 경영실태평가지 종합적 관점에서 리스크 관리 체계를 면밀하게 점검하고, 회사별 리스크 특성에 기반한 취약 부문 대응방안을 마련토록 지도할 계획

③ 자본의 質을 고려한 균형감 있는 자본 관리 필요

- 금리하락으로 기본자본이 크게 감소한 점을 고려할 때, 급격한 시장 충격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안정적인 기본자본 관리*가 필요

* 보완자본은 자본 확충이 용이하나 손실 흡수에 제약이 있으며, 관련 이자비용이 장기적으로 지급여력을 저하시키는 요소로 작용

- 보험권역 자본의 質 제고를 위한 규제 고도화가 예정된 만큼 자본 구조의 내실화를 위해 노력할 필요

⇒ 규제 도입영향 분석 및 보험업계와의 소통을 바탕으로 단계적인 기본자본 규제방안을 마련하는 한편, 회사들이 규제에 대비하여 선제적으로 기본자본을 확충할 수 있도록 지도할 계획

◆ 보험회사는 양질의 자본을 충분히 확보하는 한편, 효과적으로 위험을 관리하여 중·장기적 지급여력을 강화할 필요

➔ 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있는 만큼 취약 보험회사를 중심으로 충분한 지급여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철저히 감독할 계획

붙임1

보험회사별 지급여력비율 현황

[생명보험회사]

(단위 : %, %p)

회사명	'24.9월말(A)		'24.12월말(B)		증감 ^{주)} (B-A)
	경과조치 前	경과조치 後	경과조치 前	경과조치 後	
삼성	193.5	-	184.9	-	△8.6
교보	170.1	222.3	164.2	220.8	△1.6
한화	164.1	-	163.7	-	△0.4
신한라이프	231.0	-	205.7	-	△25.2
농협	249.7	419.7	246.4	437.7	+18.0
KB라이프	272.3	-	263.1	-	△9.1
미래에셋	193.8	-	192.4	-	△1.4
흥국	161.3	213.9	156.9	207.0	△6.9
KDB	66.3	179.5	53.0	158.2	△21.3
IBK연금	113.6	234.2	111.5	234.3	+0.2
DB	174.0	216.5	159.7	208.7	△7.9
iM라이프	131.0	178.0	108.1	190.3	+12.3
하나생명	161.4	226.6	131.1	180.8	△45.8
교보플래닛	152.6	186.4	152.3	192.3	+5.9
동양	160.3	-	155.5	-	△4.8
메트라이프	369.1	-	356.4	-	△12.7
AIA	261.2	-	238.6	-	△22.6
ABL	113.1	152.5	111.8	153.7	+1.2
푸본현대	17.3	200.9	△14.5	157.3	△43.6
라이나	368.8	-	348.2	-	△20.7
카디프	327.1	-	301.4	-	△25.7
처브	156.5	200.0	149.2	190.4	△9.7
전 체	191.2	211.7	182.7	203.4	△8.3

주) 경과조치 미적용 회사는 경과조치 前, 경과조치 적용 회사는 경과조치 後 기준 증감

[손해보험회사]

(단위 : %, %p)

회사명	'24.9월말(A)		'24.12월말(B)		증감 ^{주)} (B-A)
	경과조치 前	경과조치 後	경과조치 前	경과조치 後	
삼성	280.6	-	264.5	-	△16.1
DB	228.8	-	203.1	-	△25.7
현대해상	170.1	-	157.0	-	△13.1
메리츠	257.0	-	248.2	-	△8.8
KB	203.7	-	186.4	-	△17.3
한화	178.2	215.8	173.8	211.9	△3.9
롯데	128.7	159.8	125.8	154.6	△5.2
흥국	162.3	203.3	154.0	199.6	△3.8
농협	211.2	290.1	149.0	201.6	△88.5
MG	35.9	43.4	3.4	4.1	△39.3
하나손보	178.0	-	154.9	-	△23.2
캐롯손보	189.4	-	156.2	-	△33.2
신한EZ	169.9	-	159.2	-	△10.8
카카오페이	667.4	-	409.6	-	△257.8
코리안리	187.3	-	191.7	-	+4.4
서울보증	444.8	-	416.3	-	△28.5
AIG	236.7	-	240.6	-	+3.9
AXA	240.0	286.5	213.0	251.0	△35.5
스위스리	173.0	-	263.7	-	+90.7
스코르리	152.6	172.8	164.1	178.3	+5.4
ACE	300.6	-	259.6	-	△41.0
뮌헨리	307.5	-	319.1	-	+11.6
RGA	198.3	-	204.5	-	+6.2
알리안츠	214.5	-	184.4	-	△30.1
퍼시픽리	306.7	-	251.8	-	△55.0
팩토리	359.7	-	306.1	-	△53.5
제너럴리	344.3	-	352.5	-	+8.2
미쓰이	429.7	-	443.3	-	+13.6
하노버리	182.0	-	187.6	-	+5.5
동경해상	696.6	-	767.3	-	+70.8
퍼스트	179.1	-	192.8	-	+13.7
스타	-	-	6,181.5	-	-
전 체	218.7	227.1	203.2	211.0	△16.0

주) 경과조치 미적용 회사는 경과조치 前, 경과조치 적용 회사는 경과조치 後 기준 증감

가.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경과조치**① 既발행 자본증권에 대한 경과조치(TFI)**

- 제도시행 전 기발행 신종자본증권·후순위채권은 K-ICS기준 상
가용자본요건 未충족 시에도 모두 가용자본으로 인정

② K-ICS 업무보고서 및 공시 기한 한시적 연장(~'24.9월말)

- K-ICS 관련 업무보고서 제출 및 경영공시 기한을 1개월 연장
(분기결산 : 3개월 이내, 연결산 : 4개월 이내)

나. 선택적으로 적용되는 경과조치 : 적용기간 최대 10년**③ 시가평가로 인한 자본감소분에 대한 경과조치(TAC)**

- 시가평가에 따른 자산감소 또는 부채증가 영향(가용자본 감소효과)을
일시에 인식하지 않고 경과기간 中 점진적으로 인식

④ 신규도입 보험위험액에 대한 경과조치(TIR)

- 신규도입 위험(장수·해지·사업비·대재해위험) 측정으로 인한 보험위험액
증가효과를 일시에 인식하지 않고 경과기간 中 점진적으로 인식

⑤ 주식위험액 증가분에 대한 경과조치(TER)

- 리스크 측정기준 강화 등으로 인한 주식 위험액 증가효과를 일시에
인식하지 않고 경과기간 中 점진적으로 인식

⑥ 금리위험액 증가분에 대한 경과조치(TIRR)

- 리스크 측정기준 강화 등으로 인한 금리위험액 증가효과를 일시에
인식하지 않고 경과기간 中 점진적으로 인식

※ 경과조치 관련 세부 내용은 23.3.14.(화) 조간 보도자료 '新지급여력제도(K-ICS) 경과
조치 신고 접수결과, 19개 보험회사가 신청하였습니다' 참고